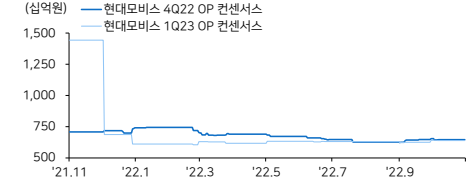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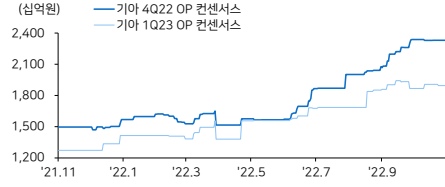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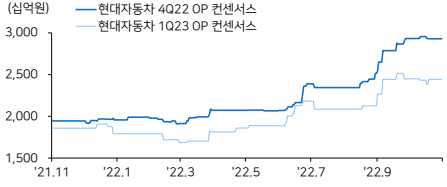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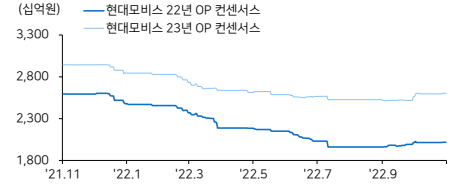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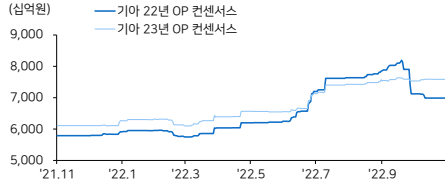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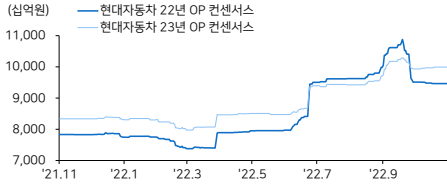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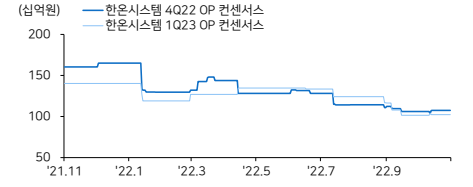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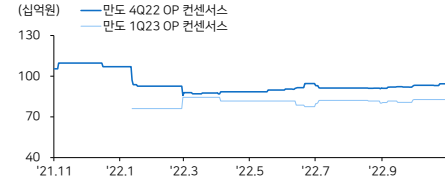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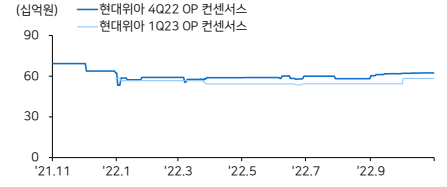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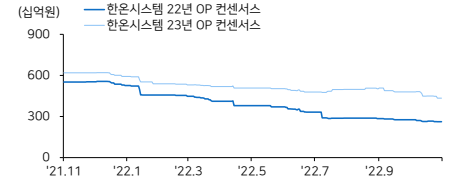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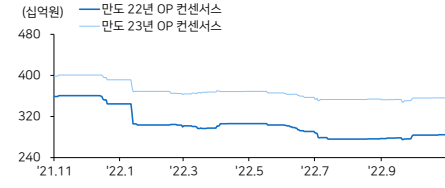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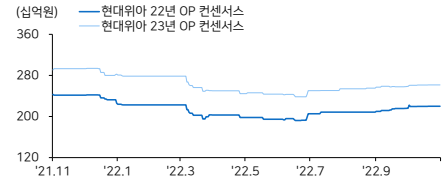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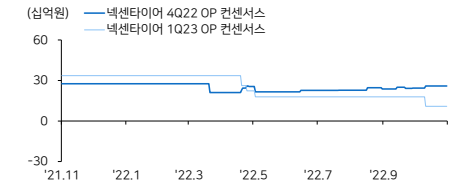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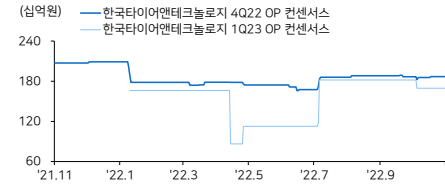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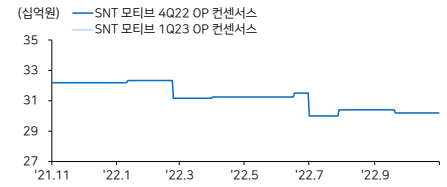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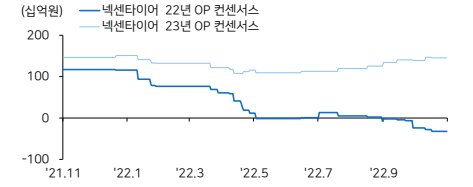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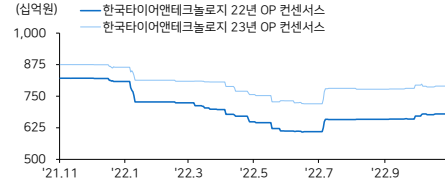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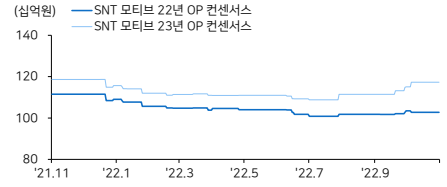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의 결단... 현대차, 1,000km 가는 중 CATL 배터리 채용 (조선비즈)

현대차그룹은 CATL이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3세대 셀투팩(CTP·Cell-To-Pack) 배터리를 유럽과 한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코나EV에 장착된 CATL 배터리 물량을 내년 2배로 늘릴 계획.
<https://bit.ly/3FeVKHD>

"車 잘 팔리는데"...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하는 정부 (이데일리)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중. 인하 조치를 만성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개소세 인하 조치로 인하여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대립.
<https://bit.ly/3gMK2e9>

Tesla (TSLA) is planning a massive output out of Giga Texas in Q1 2023 (electrek)

Tesla는 2023년 1분기 기가 텍스에서 Model Y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 생산량은 Model Y만 75,000대로, 주당 5,000대 이상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RA 세액 공제에 인한 수요 급증 또한 예상되는 수준.
<https://bit.ly/3VHuAyA>

XPeng (XPEV) misses Q3 estimates, stock rises despite lower EV delivery outlook (electrek)

Xpeng의 3Q22 인도량은 yoy 15% 증가한 29,570대를 기록하였으나, 4Q21 41,751대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중. 매출액은 8.8억달러로 yoy 14% 증가하였으나 qoq 10% 감소. 매출률이 또한 yoy 20% 증가.
<https://bit.ly/3ucoPNJ>

고급리 압박에 중고차시장 침체 우려...할부금리 높아 신차 계약 취소도 (더퍼블릭)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평균 6~7%를 유지 중이며, 중고차의 경우 케이카캐피탈 금리가 12.9%에 달하는 등 금리가 이미 10%를 웃도는 상황. 할부금리 급증으로 자동차 계약 취소가 현실화되는 중.
<https://bit.ly/3siSuDuB>

美소비자 '토요타' 버리고 '현대차·기아' 탄다 (머니투데이)

S&P글로벌모빌리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 1~9월 미국에서 합산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 미국 시장을 제패 중인 일본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이 현대차 소비자로 유입되는 등 미국 내 지위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
<https://bit.ly/3XKAmkU>

GM's Cruise plans to enter 'a large number of markets' in 2023 (Reuters)

GM의 로보택시 사업부 Cruise는 2023년에 새로운 도시와 수천대의 차량으로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로보택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Origin의 2023년 대량 생산/출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대된다는 의견.
<https://reut.rs/3Fd22HY>

Lithium prices losing momentum to climb higher (CNEF Post)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18주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남. Mysteel의 데이터에 따르면 배터리급 탄산리튬의 평균 가격은 11월 중순 톤당 590,000위안에 도달했지만 12월 연속 안정세를 보인 후 최근 하락세를 보임.
<https://bit.ly/3ZAze7hq>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니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